



오리 인형 수천 개, 15년 만에 한국에서 영국까지 '항해'



판타지 소설에서나 일어날 법한 장난감들의 '바다 모험'이 실제로 일어나났다.

지난 1992년 한국 부근 바다에서 사고로 인해 '방생(?)'된 고무 오리 인형 수천 개가 15년 만에 27,000km

가 넘는 대양을 항해해 영국 해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28일 더 타임스 등의 언론이 보도했다.

언론 보도에 따르면, 중국에서 만들어진 고무 재질의 오리 인형 등이 실린 화물선은 지난 1992년 홍콩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중 한국 부근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. 컨테이너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오리, 비버, 개구리 인형 등 총 30,000개의 장난감은 길고 긴 '모험'을 시작했다.

바다에 떨어진 30,000개의 인형 중 20,000개는 남쪽으로 향했고, 이후 이 중 상당수는 인도네시아, 호주 해안에 상륙했다. 태평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에 도착한 오리도 발견되었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이다. 이 사고를 흥미롭게 지켜 본 미국의 해양학자

커티스 에비스메이어는 지난 15년 동안 오리 인형의 행방을 추적했다. 30,000개의 인형 중 약 1/3이 북쪽으로 향했고, 수천 개의 장난감이 알래스카와 북극해를 지나 올해 여름 영국 콘월 해안에 상륙할 것이라는 게 에비스메이어의 설명이다.

15년 동안 오리 등은 술한 난관을 겪었다. 망망대해를 외로이 떠다녔으며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점을 거쳤고 일부는 얼어붙은 북극 부근에서 수년을 간혀 있기도 했다.

이제 곧 영국으로 상륙할 오리 부대들은 수집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, 해안에 상륙하는 오리 인형이 고가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. 장난감 오리들의 모험이 알려지면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어린이 책이 두 권이나 쓰여졌다. 미국의 장난감 판매사인 '퍼스트 이어스'는 2003년 이 오리를 발견해 가져오는 사람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. 현재 수집가들 사이에 장난감 오리는 약 1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 이래저래 오리들의 영국 상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.

한편, 오리 인형의 긴 바다 여정은 해양 과학자들의 해류 연구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[사진] 세계 각국의 해안에서 발견된 오리, 개구리 인형을 해양학자 커티스 에비스메이어/영국의 언론보도 : 이상범 기자 (저작권자 팝뉴스)

